5월 부상자들의 '잃어버린 꿈' 카메라 앵글에 담아드립니다

2011년 5월 어머니 촬영하며 인연
"트라우마 갖고 있는 부상자들
달라진 삶 이야기하고 싶었다"

7월부터 4개월간 아르헨티나 체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촬영
광주어머니·부상자 사진 함께 전시

사진작가 김은주씨 작년 10월부터 촬영·취재·녹취… 70여명 계획

광주 보훈병원 31병동에서 찍힌 김범동씨의 사진. 하얀 환자복 위에 요리사 복장을 갖춰 입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엷은 미소가 아련하다. 그의 꿈은 요리사였다. 5·18 광주항쟁 당시 부상을 당해 후각을 잃고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 여행을 좋아했던 어떤 이는 비행기를 손에 쥐고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작가처럼 카메라를 잡고 포즈를 취한 이도 있었다. 사진에는 잃어버린 그들의 꿈이 담겼다.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 사진작가 김은주(45)씨는 손에 자은 지구본을 쥔 이종남(63)씨를 앵글에 담느라 분주했다. 이 씨는 5·18부상자다. 제과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5월18일 공용터미널에서 곤봉을 맞고 의식을 잃었었다. "세상은 순풍에 돛단 듯 살아야 하는데 그 순간 후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 토박이인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박4일씩 광주에 머물며 5·18 부상자를 촬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명의 촬영을 마쳤고 모두 70여명을 앵글에 담는다.

김씨는 부상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일상의 모습을 찍고 싶어 도피처이자,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막같은 집과 일터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김씨는 무엇보다 부상 당하기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릴 적 꿈과 좋아하는 것에 주목했다. 배구를 좋아했던 이는 배구공을, 군인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는 6·25훈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이를 위해서는 마이크를 빌려와 촬영하기도 했다.

"그분들의 상처를 들여다 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촬영을 제안했을 때 힘들어하신 분도 있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아요. 난 이렇게 살고 싶었다며 젊을 적 꿈을 이야기할 때는 다들 행복해하시기도 했구요. 방이 너무 좁아 앵글이 나오지 않아 문짝을 뜯어내고 촬영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분들도 많았죠. 마지막 컷은 꼭 부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소중하게 기억하시라고."

영정사진을 부탁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라 이야기한다.

계원조형예술대 사진예술과 출신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앵글에 담아온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어머니들을 촬영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오월 어머니 41명을 슬픔과 고통이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또 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그곳' 5월 현장으로 데려가 촬영 했다. 사진전 제목 '여기, 여기…'는 어머니들이 김씨의 손을 잡고 "여기야, 여기"라 외친 공간들이다.

김씨의 다음 행보는 아르헨티나다. 광주 어머니들과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어머니들을 찍기 위해서다.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추악한 전쟁으로 수많은 실종자를 낳았고, 어머니들은 '오월 광장 어머니회'를 조직,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광장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한 기저귀로 만든 스카프를 목에 걸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씨는 7월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4개월간 머물며 그 어머니들의 '바람'을 사진에 담고 그 곳에서 광주 어머니, 부상자 사진을 함께 만나는 전시회를 갖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광주 전시도 준비중이다.

김씨는 "'영원히 아이를 품는' 어머니로 남기를 바라는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마음은 곧 오월 어머니들의 마음과 같고, 그 마음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요리사가 꿈이었던 김범동씨

여야,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올해부터 연 2회…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구성하기로

여야가 매년 정기국회 때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실시하기로 최근 원내지도부 간 접촉을 통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를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에 대해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돼온 국정감사는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수석부대표는 국감 시기와 관련, "상반기의 경우 6월에, 하반기는 9월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민주당이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정 수석부대표는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피랍 한석우 무역관장 사흘만에 구출

리비아 당국, 납치범 4명 체포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한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사흘 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주리비아 한국 대사관은 22일(현지시각) "한 관장이 오늘 오후 5시께 리비아 보안 당국에 의해 구출돼 오후 9시15분(한국시각 23일 오전 4시15분)께 리비아 정부로부터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 관장은 무사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우리 외교부도 한 관장의 구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납치범은 트리폴리에서 활동하는 군소 무장단체의 일원으로 파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리비아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한 관장과 납치범의 위치를 확인하고서 석방 조건을 들어주는 동시에 군인까지 동원해 전격적인 납치범 체포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리비아 당국이 납치에 가담한 4명을 체포했다"며 "공범이 더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납치범들의 자세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몸값을 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리비아 현지 일각에서는 납치범들이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현지 한국 대사관은 한 관장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한 관장의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J·문익환 목사 유족에 형사보상금 2억씩 지급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만인 지난해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2) 여사에게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61)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2억606만원을 정부가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작년 7월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연합뉴스

진도 오류리 2차 발굴 문화재 400여 점 공개

진도 앞 바다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잠들어있다는 광주일보 보도〈1월9일자 1면〉에 이어, 문화재청이 2차 발굴 조사를 통해 진도 오류리 해역에서 발굴한 문화재 400여 점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유물은 삼국시대 초기 '경질무문토기'와 고려시대 청자류, 임진왜란 당시 돌 폭탄인 석환(石丸) 등이다.

문화재청은 오류리 해역에서 다수의 닻돌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 고(古) 선박 발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올해 5월부터 제3차 추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굴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연합뉴스

2014년도 협력업체 모집 공고

(주)서진종합건설에서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공종 [22공종]

토공,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구조물], 건축, 조적, 방수, 미장, 타일, 단열 및 흄음, 도장, 금속 및 잡철물, 수장 유리, 창호, 석공사, 조경, 인테리어, 철거, 전기, 설비, 소방, 통신

2. 신청자격

1. 공종별 영위기간 3년 이상 경과한 회사
2. 시공능력평가액, 등록공종 전국순위 40%이내
3. 신용평가등급 B-이상이며, 현금흐름 B-이상 [신용평가기관]

3. 등록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등 록 및 제출서류	01. 24. ~ 02. 06.	우편제출: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 (주)경방건설 E-mail : sns9114@hanmail.net	
서류평가	02. 07. ~ 02. 13.	※첨부서류 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등록신청공종의 건설업등록증 5. 기업신용 평가서 6. 품질환경 인증서 7. 시공능력순위확인서 8. 보유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증명서 9. 등록신청공종의 3년간 공사실적 총괄표 및 내역표 10.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11.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공동주택 시공실적 우수업체 우대
등록심사	02. 14. ~ 02. 20.	㈜서진종합건설 외주팀 (당사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확정공고	02. 21. ~ 02. 25.	선정업체 심사 후 업체별 개별통보	

※관련문의 061-383-4332
담당자 허연실 과장

(주)서진종합건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의원